D사
두드림 장학센터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글로벌 센터,
우리는 이문화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배운다!

교육일정: 2021년 5월~ 현재

지역사업본부
임은지(Chloe L) 선임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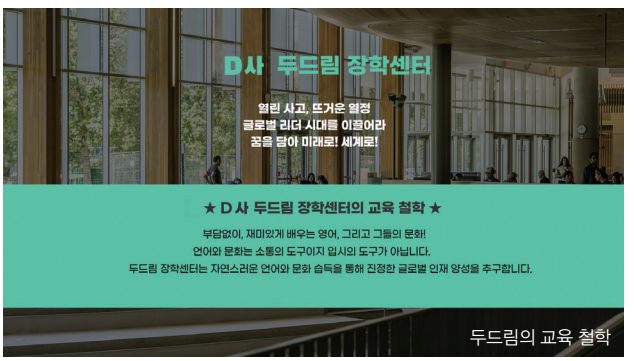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D사 두드림 장학센터는 2021년 5월 캐럿글로벌과의 협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D사 직영 및 협력사 자녀(초등5학년~중등2학년)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등원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년과정으로 운영되며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닌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 역량 자체에 포커스를 둔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진행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과정은 무엇인가요?

두드림 장학센터 교육의 특장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은 세 가지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문화체험이 병행됩니다. 연 6회 영어 문화권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Special Day가 진행됩니다. 해당 문화 이벤트 데이에는 정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전체 클래스 전체 선생님들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채워집니다. 단순히 언어만이 아닌 문화를 함께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를 계발합니다. 두드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둘째, 놀이기반/흥미 기반 커리큘럼이 진행됩니다. 두드림에서는 매 수업(80분)의 구성이 참여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매 유닛마다 게임과 역할극 등을 통해 주요 표현들을 오감으로 인지하여 장기기억화 시킵니다.



두드림의 교육 철학

두드림 교육의 특징

이스터 행사

2021 두드림 영어 스피치 대회 디상식(코로나로 인해 Best Speaker만 초대하여 간소하게 진행)
왼쪽부터 Chloe L매니저, 인사1부 이주용 책임님, Sunny운영매니저,
Best Speaker 이나연 학생, Jenny 선생님

셋째, 장학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영어로만 소통합니다. CARROT Way 중의 하나인 EOP(English Only Policy)가 두드림 장학센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학생들은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센터내 모든 스탭분들, 선생님들, 친구들과 영어로만 소통하게 됩니다. 영어를 자연스러운 일상에서의 소통으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친숙함을 높입니다.

지난 교육 일정을 되돌아본다면...

2020년 장학센터 설립 기획에서부터 2021년 설립, 이전, 그리고 올해까지 지속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도전과 역경,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교육을 주력으로 하던 캐럿에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가슴 두근거리는 도전의 여정이었습니다. 거제 교육청, 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캐럿과 D사의 여러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면으로나마 인사1부 이주용 책임님, 인사2부 박지현 책임님, 그리고 총무부를 비롯해 장학센터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유관 부서 담당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부터 현장에서 고생해주시는 박수연, 이은오 매니저님, Stuart, Jin, Rosa, Shantal 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학습자나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몇 년간 영어학원에 가기 싫어해 여러 학원을 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던 학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드림 장학센터 과정을 신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는 두드림 가는 날 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영어에 대한 확실한 흥미가 생긴 것 같다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인상깊게 남습니다.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거제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Chloe!!!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거제도에서 저를 알아보는 아이라면 두드림 학생일 거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잠깐의 대화를 했고 헤어졌습니다. 잠시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생님" 대신에 "Chloe"라고 불러준 아이, 완벽하지 않지만 먼저 다가와 영어로 대화해준 아이, 두드림의 교육 철학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고 영어를 일상에서 친근하게 느끼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 아이에게 정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음이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아이의 어린시절에 영어라는 작은 연결고리로 긍정적 기억을 심어주고, 어쩌면 작은 꿈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일의 사명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시적으로는 두드림 장학센터를 지역내 최고의 글로벌 어학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나아가 더 많은 전세계 교육기관이 본받을 만한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작은 바램으로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밑거름이 되고 후에 두드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멋진 글로벌 인재가 된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학습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Hey, DoDreamers! "We are not afraid of English; we enjoy communicating in English!" Let's continue to have fun! I hope DoDream will remain as a good piece of memory from your teenage years. Keep up the good work! :-)